

일본, 국산 와인 및 일본주 표시 규칙 신설

일본 국세청은,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와인의 표시 규칙을 새로 만들어 국산 포도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와인만을 "일본 와인"으로 하고, 포도의 산지와 품종 등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수입산 농축과즙으로 제조된 와인이 많이 판매되어 있으나 국산와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국산와인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규 기준 설정을 통하여 "일본 와인"의 보호와 우선적인 판매를 지원하려는 의도이다.

국세심의회의 자문과 의견공모를 통해서 올 가을에 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제조하는 와인 중, 국산 포도만으로 제조한 와인은 40%밖에 없다. 또한, 와인은 엄격한 표시규칙이 없어, 수입원료로 만든 와인과 혼동되기 때문에 국산와인의 브랜드력 강화나 수출을 담보시키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표시규칙을 설정하여, 하나의 산지에서 수확된 포도를 85%이상 사용하면 상품 라벨에 산지명을 표기할 수 있게 한다. 산지에 양조지가 없는 경우 '○○산 포도 사용' 등 산지명에 대한 명기가 필요하고, 하나의 산지의 포도 사용량이 85%미만인 경우는 양조지의 표시가 가능하다.

동시에 상품 라벨 표시도 정비할 예정으로 제조자 정보 및 알코올 도수와 함께 ①일본산 와인 ②원재료명과 그 원산지명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일본주’에 관해서도 표시법이 명확하지 않고, 원료인 쌀이 일본산이든 외국산이든 "일본주"로 표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식 붐의 영향을 받아 해외에서 현지의 쌀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주"에 있어도 새로운 표시 규칙을 마련하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일본산 쌀을 원료로 일본에서 생산 된 술만을 "일본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새로운 표시 규칙은 통해서 "일본주"라는 브랜드를 명확화하여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처 : 일본농업신문, NHK뉴스 등

■ 시사점

-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와인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산 와인의 판매 지원을 위해 표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 또한 막걸리 등 한국 전통주도 일본에서 일부 생산 되고 있는 점은 일본주상황과 같다. 한국산 막걸리의 브랜드력 강화나 국산 수요의 확대 및 수출지원을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한국산 쌀을 사용한 술만이 한국산이라는 브랜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